

‘탕후루 열풍’ 이면엔 “쓰레기 고민”

설탕물 꼬치·종이컵 거리 굴러다녀 “손 끈적해져서 길에 버린 적 있어” “시민도 쓰레기 처리 함께 고민해야”

“요새 노(NO) 탕후루존이라고 꼬치를 못 들고 들어오게 하는 곳도 있는데 이해가 돼요. 먹으면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야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에겐 유행처럼 번진 중국 간식 ‘탕후루(糖葫芦)’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 않은 모습이다. 과일을 꼬치에 꿰 뒤 설탕 시럽을 입힌 주전부리를 먹은 뒤 남은 쓰레기가 점차 길거리를 채우면서다.

지난 5일 뉴시스가 찾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의 한 탕후루 가게에는 평일 한 낮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가게 앞에 줄지어 기다리던 시민들은 꼬치를 받아 들고 무심하게 가게 앞이나 근처 공원 등에서 바로 탕후루를 먹고 ‘인증샷’을 찍었다.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날이 더워서 그런지 밖에서 조금만 들고 다녀도 금방 설탕이 녹아서 손이 끈적거리다”며 “보통 가게 앞에서 바로 먹고 움직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가게 인근에 있는 벤치에 앉아 탕후루를

먹고 있는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문제는 설탕물이 묻어 끈적거리는 꼬치와 종이컵 등의 부산물이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지적이다.

길가의 화단에는 종이컵과 꼬치를 나뭇가지처럼 꽂아둔 모습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거리에 그대로 버려진 쓰레기 근처에는 더운 날씨 탓에 금세 벌레가 꼬였다.

김씨는 “탕후루 꼬치를 계속 들고 다니다가 손에 다 묻은 경험도 있다”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만 결국 쓰레기통이 나오지 않아서 버티지 못하고 길에 버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인근 상인들은 불편한 기색이다. 옷 가게 주인 50대 강모씨는 “밤이 되면 술 먹고 탕후루를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취해서 그런지 쓰레기를 더 막 버린다”며 “가게 앞에도 누가 꼬치를 몇 개씩 버려서 계속 치워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탕후루 가게들도 쓰레기통을 마련하는 등 자정에 나서고 있지만 꼬치를 들고 자리를 뜨는 손님들에게



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탕후루 가게 주인인 40대 이모씨는 꼬치와 종이컵을 구분해 버릴 수 있는 통을 마련해줬지만 “가게 앞에 쓰레기 버릴 수 있게 준비해 뒤도 길에 버릴 사람은 버린다”고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탕후루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마련하진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구매 후 처리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하려면 시민들이 탕후루(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주말 응급환자 바다의 앰블런스 역할 특독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를 실시하던 중,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2건이 발생하여 현장대응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수소방, 산단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개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최근 산단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소방,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최근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 가을철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중 벌쏘임 사고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진도소방, 119구급대원 특별구급교육훈련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최근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화순경찰, 주민불안 해소 특별치안활동 지속 추진

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특별치안활동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 될 때까지 관내 범죄취약지를 대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소방청, 목욕장업 861개소 안전 점검...“화재 예방 강화”

유증기 발생량 증가 따른 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소방청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목욕탕 및 유사 관련 시설 중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861개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달간 전수 소방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탕에 설치된 위험물 시설(옥내탱크저장소 및 지하탱크저장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관련 기술기준 적합 여부 ▲각종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허가된 위험물 외 불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목욕탕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 및 보일러 등을 설치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시설로서 허가를 받고, 운영 개시 전 완공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험물 시설로 허가받은 목욕탕 관계인은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기 전 위험물안전 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 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점검하는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및 서장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기준의 유지·관리 여부 등에 대해 소방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목욕탕 관계인을 처벌할 수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국 목욕탕 및 유사 관련 시설 중 노후화 된 유류 탱크 및 보일러 등이 설치돼 위험성이 상존하는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9월 모의고사 치르는 고3 학생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오전 울산 중구 약사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모텔서 마약 투약 20대, 경찰 피해 달아나다 CCTV에 덤미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숙박업소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북구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당 투약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주먹가 담벼락을 넘어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긴급 지령을 발령, 3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재판 도중 또 마약 투약한 20대 옛 연인 신고로 구속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옛 연인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뒤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0·여)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0.03g을 두차례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SNS를 통해 수차례 마약을 구입·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재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옛 연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 3일 광산구 우산동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벌인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임형택기자